

## 제3권 (9단원) 성도의 풍성한 삶

## (제51과) 주님께서 받으시는 선행

- 본문 : 마태복음 25:31-46
- 요절 :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 25:40)
- 찬송 : 278장(새찬송가 220장), 369장(새찬송가 218장)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일이요 또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실천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선행을 실천하려면 그만큼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저마다 자신의 몫을 챙기기에 분주할 뿐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선행을 이해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도는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선행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 1. 성도는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자기 속에 복음의 진리를 소유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낼 때라야 진정한 가치를 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를 바깥으로 드러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빛으로 나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산상 수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라고 하신 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좋은 사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는 수적으로나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매우 불리한 여건에 있었고, 더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핍박과 위협을 받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초대 교회가 날마다 놀라운 부흥 성장을 이룩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풍성한 선행에 힘입은 바가 컸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7下)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선행이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힘써야 할 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히 13:16)하신 말씀에 따라서 힘써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2. 성도는 주님께 인정받는 선행을 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선을 행하다가도 때로는 처음 가졌던 의욕을 상실하고 기피하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행이란 예수님께 인정받는 선행일 때 가치가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은 영광중에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의인들은 오른편에, 악인들은 왼편에 둘 것입니다. 그 때에 주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 25:34~36)라고 말씀하시면, 의인들은 영문을 몰라 하며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쾌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마 25:37~39)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때에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도들의 선행을 기억하시되 소자에게 제공한 냉수 한 그릇조차도 잊지 않으시고 주님께 행한 선행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선을 행하되 무거운 의무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또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 3. 하나님은 즐겨 선을 행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구원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요, 사람의 선한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선행을 독려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예비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고 천사의 지시에 따라 욕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던 중 그와 그 집에 있던 모든 권속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사가 고넬료에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행 10:4~5)라고 한 말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더불어 그의 많은 구제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셨음을 지적해 줍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또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누구라도 죽은 후에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재물을 모을 줄만 알았지 선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믿음 생활과 더불어 선행에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선행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의 우선순위는 먼저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끔 은총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